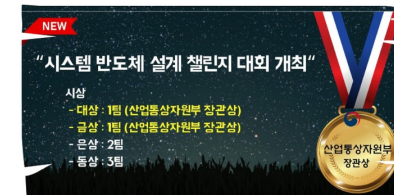


2025 IDEC



“시스템 반도체 설계 챌린지 대회 개최”

2025년 12월 23일(화), IDEC 캠퍼스 6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의 상위 3팀이 참여하는 통합 본선 대회 ‘시스템 반도체 설계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0년의 발자취,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미래”

2025 IDEC Congress 및 설립 3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5인 공헌자 회고, MVC 발표, 초청 강연 등 지식과 감동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현장의 감동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IDEC의 미래에 지속적인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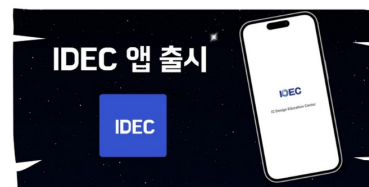
“14nm FinFET 공정 2026년부터 본격 지원”

올해 삼성 14nm FinFET 공정을 활용하여 파일렛 칩 제작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칩 제작 지원이 시작되며, 1회 최대 48개 팀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IDEC MVC 선언”

IDEC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IDEC의 미래 방향을 세우고자 새로운 Mission(사명)-Vision(비전)-Core Value(핵심가치)를 선언했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약하는 IDEC이 되겠습니다.



“IDEC 앱 출시”

IDEC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용 앱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 편리한 IDEC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DEC 30주년을 맞이한 을사년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축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IDEC소장 박인철 배상



고은진
예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걸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남은 2025년도 무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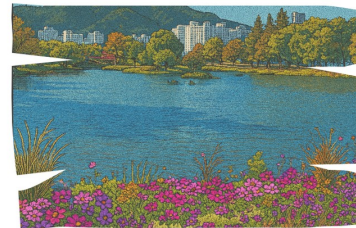
김별님
올해 러닝을 시작하며 처음엔 10분도
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40분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러닝대회도 참석해볼까
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김연태
은 가족과 함께 러닝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2026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김영지
출산과 육아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얼마 전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업무에 적응해서 프로 워킹맘이
되어야겠습니다. 올해 IDEC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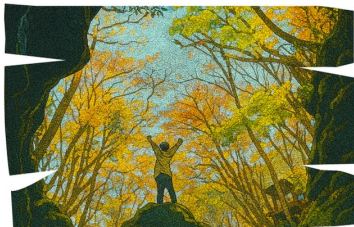
김예나
유독 올 한 해는 길었습니다.
가진 추억이 많으면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곧게 쌓아 놓은 올해의 추억이
내년을 또 살게 해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올 한 해, 제게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우리 IDEC 덕분에 힘든 순간들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일상에
즐거움은 더 크게,
건강은 더 단단하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



김해리
올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엄마의
칠순맞이 제주도 대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복작거리는 가족사진
처럼,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온기와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의숙
허리 통증이 있는데 한라산에 오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주변의 좋은 인연들과 따뜻한
한 동행으로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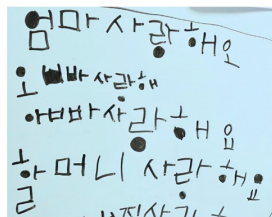
2025 IDEC STAFF MESSAGE



문관식
숨겨진 진명소 논산천에 갈대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 숲이
장관이네요.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선혜승
IDEC 30주년을 맞아 다시 돌아와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IDEC의 새로운
일들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인진
유치원생인 둘째가 쓴 글입니다.
역시 엄마가 최고네요. 오빠가 아빠보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천한나
2025년, 육아 후 다시 사회에 나와 IDEC에
서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협조와 직원분들의 격려
덕분에 잘 보낸 한 해였고,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우숙
올해는 친정어머니와 시부모님과과의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석은주
올해 우리 아이가 피아노 전공을
고민하다가 취미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예체능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껴본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일선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 많았던 뜻깊은
해였습니다. 도예를 배워 그릇을
만들고 IDEC에 입사하여 좋은 분들과
웃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롭고 기쁜 일 가득한 새해 되세요!



이종형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